

올바른 정보활용으로 바람직한 육아 실현을

우남희 소장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과 공유, 활용이 국가 발전과 개인의 삶의 질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특히, 통계는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2013년에 공표한 '정부 3.0'의 정책기조에 따라 공공 정보의 공개와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유보통합이라는 중요한 국정과제의 실행을 앞두고 유아교육 및 보육 분야에서도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정책 실행을 위해 적실성 있는 통계 생산과 구축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또한 영유아 부모가 범람하는 정보 속에서 육아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육아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발맞추어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2014년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생산방안'과 '영유아 부모의 육아정보 이용실태 및 활용지원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국가 수준의 통계 자료 구축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관리부처의 이원화로 인한 통계자료 구축의 문제점 및 보완책을 강구하고 통합 생산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가 지향하는 공공 정보 공개 및 활용에 진일보한 정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필요한 정보는 무엇이며,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지원방안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계는 관리체계의 이원화로 인하여 지표와 세부항목이 서로 상이하며, 생산의 기준시점이 서로 달라 비교 분석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신의 정책적 변화나 수요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통계가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한편, 영유아 부모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입소 신청 및 이용과 관련한 육아정보 서비스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였고 별달, 교육, 의료,



안전에 관한 육아정보의 필요도가 높았다.

통계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이고도 합리적인 정책수립과 영유아 부모를 위한 육아정보 활용지원 방안을 통해서 영유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행정가와 전문가, 일반인에게까지 공유하고 확산함으로써 정부와 민간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